

# 근로자 건강보호, '선택'이 아닌 '필수'

변화하는 산업보건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김희걸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



산업현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면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역시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산업보건의 경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과 복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급격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도 기존의 '질병예방'이라는 소극적 틀을 벗어나 '건강증진'이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고, 제조업을 탈피해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보건관리 영역이 넓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끊임없는 발전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한국산업간호협회가 있다. 1994년 설립 이래 협회는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가 일선 현장에서 원활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이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왔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산업보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근간인 한국산업간호협회의 김희걸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봤다.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주요 활동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선 현장의 보건관리자들이 각자의 소명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정기적인 직무교육 실시,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유해 화학물질관리, 작업관리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작업환경 속에서 건강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산업보건의 활동영역 확대 등을 위한 정책활동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협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성장기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회는 보건관리자들이 직업건강 전문가로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도 배양할 수 있도록 외국 유관기관과의 교류 등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을 막론하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정당한 건강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업종을 제조업과 기타 일부 업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보건관리자 전 업종 확대 배치에 대한 요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을 건설업을 비롯해 보다 많은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미 선임 사업장에서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건관리자 배치 사업장이 보건관리 대행이나 미 배치 사업장에 비하여 산업재해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근로자 곁에서 근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복잡해진 근무환경에서 이제 근로자 건강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맞춘 안전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경영진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저희가 안전보건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면 반감이 상당합니다.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을 지원이 아닌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무상으로 지원하는 안전 보건 기술지원조차 간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업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 없이는 어떤 안전보건사업도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저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대형 사업장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규제가 아니라 관심과 지원이라는 감성적 접근과 설득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 안전보건은 강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을 위한 기본임을 사업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정부나 몇몇 기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회 각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힘이 처음에는 미약할 수도 있으나 점차 모이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 전국의 안전보건 관계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전 보건 업무는 유형의 물건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산재로 인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여 그 가족을 유지시키고 행복을 선사합니다. 안전보건인들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긍심과 당당한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더욱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변화하는 산업보건안전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위험성평가나 보건관리자 직무 강화 방침 등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이에 대비하여 직업건강관리사 자격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